

Chemical Reaction

정유/화학 이동욱 | 02) 6915-5671 | treestump@ibks.com



예상보다 상향된 미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 발표

미국 내 생산기반을 보유한 태양광 업체들의 반사수혜 발생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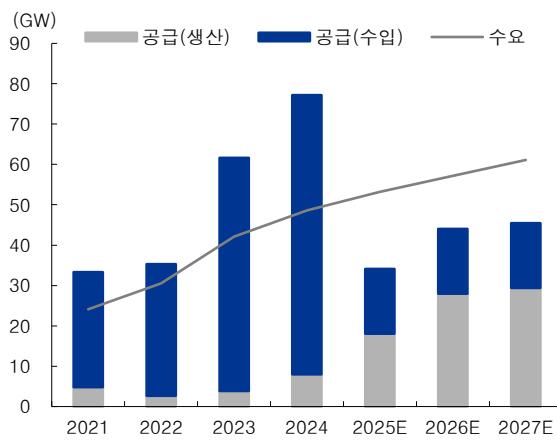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를 최종 발표하였다. 기업과 국가에 따라 상계관세 14.64~3,403.96%, 반덤핑 관세 6.1~271.28%가 부과될 전망이고, 이전 예비 결정보다는 관세율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저가 수출로 미국 시장이 왜곡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6월 2일(현지 시간) 이후 ITC에서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한화큐셀, First Solar 등 7개사가 포함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의 요청으로 시작된 조사 결과로, 동남아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 업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약 70%를 점유한 중국 제품이 퇴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내 생산기반을 보유한 First Solar와 한화솔루션의 반사수혜가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한화솔루션 말레이시아 공장은 가장 낮은 관세율(상계관세 14.64%, 반덤핑 관세 0%)이 적용되었다.

참고로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를 대상으로 미국의 차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이 올해 2분기 말에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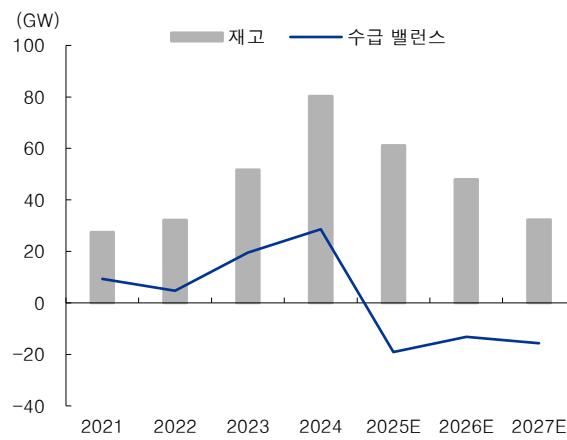
이에 미국은 수입 감소 등으로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미국의 고위 태양광 모듈 재고는 올해부터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양광 모듈 공급/수요 추이/전망



자료: 각사, IBK투자증권

미국 태양광 모듈 재고/수급 밸런스 추이/전망



자료: 각사,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